

미·이란 2주 휴전... '충돌직전 핸들 꺾었다' 종전 힘로

개전 38일 만 '2주간 공격 중단·호르무즈 개방' 파키스탄 중재안 수용 '문명파괴' 말한 트럼프, 시한 88분 남기고 유턴...양쪽 확전 부담 느낀듯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란전이 최악의 확전 위기를 넘기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게 됐다.

'치킨게임'을 하던 양측이 충돌 직전에 각 차량의 핸들을 꺾은 모양새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유가 추가 상승' 등으로 세계 경제에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압박과 함께, 미국의 파병 요구와 결부된 한미동맹 관련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번 휴전 합의로 경제·안보 관련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에 임박해 휴전안 수용 사실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파국을 피했다. 전쟁 개시 이후 38일 만에 이뤄진 휴전이다.

미국과 이란 모두 2주의 시간을 벌 가운데 앞으로의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제시한 협상시한을 1시간28분 앞두고 나온 발표였다.

이란 역시 2주간 휴전에 동의하면서 이 기간 이란군과의 협조 아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교량과 발전소 등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세차례에 걸쳐 시한을 유예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 당일인 이날 오전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이 이란과 합의 불발에 선언하고 실제 이란 인프라 공격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과 중동 전역의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유가의 추가적 폭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됐다.

시한이 임박해오며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관측도 나왔으나, 파키스탄이 시한 약 5시간 전 '2주 휴전 중재안'을 공개 제안한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

백악관과 이란에서 '2주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결국 양측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명 파괴'까지 거론하며 고강도 압박을 이어



휴전 소식 전해진 이란 8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엔켈라프 예술거리(이슬람 혁명 광장)에서 전쟁 2주 휴전 발표 후 친정부 시위대가 이란 국기와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가 그려진 포스터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안을 받아들인 것은 우선 확전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개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번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지 여론을 줄곧 상회하는 상황에서 '출구 찾기'가 지연될 경우 집권 후반기의 회 권력을 결정할 11월 중간선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역시 확전 부담과 경제적 타격 가능성을 고려해 휴전안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인프라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군사시설 피해를 넘어 에너지·수출 기반까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으며 막대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과 외교적 고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주 휴전은 양측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막는 완충 장치 성격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아프간 홍수 사망 110명...파키스탄 40여명 숨져

지난 약 2주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10명을 넘어섰다.

7일(현지시간) 아프간 국가재난관리청(ANDM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후 아프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이에 따른 홍수·산사태·낙뢰 등으로 전날까지 최소 100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160명이 부상했다.

가옥 98채가 완파되고 4천155채가 부분적으로 부서졌다. 또 325km가 넘는 도로가 유실되고 농경지 약 6만3천㎡가 침수됐으며, 수도 등 관계 시설이 파괴됐다.

특히 수도 카불과 동부 주요 도시 잘랄라바드를 잇는 고속도로, 잘랄라바드와 북동부 쿠나르주·누리스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산사태와 홍수로 며칠 동안 폐쇄되면서 지역 교통이 차질을 겪었다.

집을 진흙 벽돌로 지어 홍수 피해에 특히 취약한 마을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당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상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우기 동안 강을 비롯해 홍수 발생 가능성이 큰 장소에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했다.

아프간 동부 라그만주 주민 아사달라 오마르 자이는 EFE 통신에 "자정쯤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높은 곳으로 뛰어가라"고 말했다.

그는 홍수로 집과 살림살이를 모두 잃었다면서 "지금은 다른 집 담벼락 옆에 천막을 쳤지만 그곳조차도 땅이 완전히 물에 잠겨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같은 시기 아프간과 인접한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도 폭우로 최소 4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이 남극 내륙 빙하를 3천400m 이상 관통하는 데 성공하며 극지 심층 탐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자연자원부는 전날 남극 과학탐사대가 남극 내륙 기린 빙하로 상부에서 열수 시추 시험을 실시해 3천413m 깊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국제 극지 열수 시추 최심 기록 2천

중, 남극 빙하 3천413m 시추 성공... "세계 최심 기록 경신"

540m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중국은 이번 성과를 통해 남극 빙상의 90% 이상과 북극 전체 빙하에서 시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했다고 자연자원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추는 동쪽 남극 대륙의 프린세스 엘리자베스 랜드 빙상에 위치한 기린 빙하에서 진행됐다. 해당 호수는 두꺼운 빙하 아래에 있어 고압·저온·암흑·저영양 환경이 장기간 유지된

‘극한 생태계’로, 지구 고(古)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생명 존재의 한계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 시도는 시추 과정에서 외부 오염을 최소화하는 열수 시추 기술과 공정이 적용돼 빙하에 대한 현장 관측과 호수바닥 부분 샘플 채취를 위한 ‘무오염 접근 통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활절 연휴’ 사건사고 200명 이상 사망

라틴아메리카 최대 명절인 부활절 연휴 기간(Semana Santa)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로 중앙아메리카에서만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베아가 7일(현지시

간) 보도했다.

국가별로는 온두라스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온두라스 당국에 따르면 교통사고 35명, 의사 16명 등 51명이 목숨을 잃어 작년(21

명)과 견줘 사망자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코스타리카에서도 49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21명이 교통사고, 9명은 강력 사건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에선 각각 42명, 엘살바도르에선 39명이 각종 사건·사고로 숨졌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민생·영향 서비스를 한번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한 번에, 한 손에!
1천만 고객이 선택한 NH국민뱅크!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나를 가장 잘 아는 스마트한 카드!
올바른 NEW HAVE 카드

기본예금과 이자 0% 대출 0% 수수료 적용
·소득 4백만원 이하: 2% / 위: 1% / 1% 적용
·국세공정 관련 유익을 세스알리 혜택 제공
·농민 안전·고질·스트레스해방 이계수수료
·행복 10대 혜택

왕복·선물·여행
걱정의 마음, 하나로 완성!
NH농비보험치로보험

일평균 10만 원의 편익과 100%까지 배상 보장
이거 하나로 든든하게, 100%까지 배상 보장

·20~80세, 유증지도 간편 가입 가능
·100세까지 비경상행해금(유망 가업)
·경신형 담보 제공
·첫날부터 보험 및 첫날부터 보험
·가입자 1% 할인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 | 해외여행 가까운 서광주농협에서 환전하세요
·해외송금 | 안전한 서광주농협 해외송금으로 안심하고 보내세요

농업인의 내일을 키우는 금융
농협이 함께 합니다.

·농업인 전용 금융지원
·농지담보대출 특화상품
·농지대자금 대출인도 최대 80%
·보유 농지 활용 자금 마련
·영농·생활자금 지원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기아지동지점 062)385-4977-8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비 들 지 점 062)381-1971-2	등 림 지 점 062)513-8521-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동림아니로지점 062)531-774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동 운 지 점 062)528-2640-2	용 신 지 점 062)526-022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아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영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와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지역 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